

조선의 건국은 단순히 왕조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역사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데에 있다. 이는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 새 왕조 건설 초기부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고, 또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은 부패한 권문세족을 대신하여 신진 사대부 세력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가문의 배경보다는 주로 과거 합격자를 관리로 뽑아 쓴 실력을 중시한 관료제 사회로서, 정치·양반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양반들은 국·국왕을 견제하고 그들의 정치 권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토지 제도의 개혁 등 일반 백성들의 생활 향상에도 힘을 기울여 백성의 생활이 안정을 찾게 되었다.

한편, 조선을 세운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성리학의 이념과 이론에 따라 덕치주의를 내세워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도 유교 예속을 많이 권장하였다. 이로써 성리학이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어 유교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생겨났다.